

제1회 한미 민간경제위원회 합동회의 소개

제1회 한·미 민간경제위원회 합동회의는 196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S·R·I 와 전국 경제인 연합회 공동주최하에 미국측 대표 76명, 한국측 대표 97명이 참석 서울(위키힐)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경제인들은 오랜 벗으로서의 상호 신뢰와 친근감을 갖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轉換期에 선 한·미 경제협력과 민간기업의 역할”

이라는 주제하에 투자 여건분석과 합작투자증진 방안, 상호무역증진 문제, 관광 및 기술, 경영협력 문제들을 2회에 걸친 합동회의와 연 6회에 걸친 원탁회의에서 한·미간에 相互 의견을 모았다.

이에 본 총연합회에서도 김윤기 회장과 김동일 부회장께서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 과학 기술자들의 입장을 명시한바 여기에 그 제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技術協力促進方案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代表 여러분!

本人은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會長으로서 韓美間의 技術協力問題에 關하여 말씀드릴 機會를 갖게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나라의 朴正熙大統領閣下께서는 祖國의 近代化와 經濟建設을 위하여 科學技術의 振興을 하루 速히 이루어야겠다는 것을 強調하고 계신 便 第三共和國의 樹立과 더불어 強力하게 밀어온 輸出增大를 위해서도 科學과 技術의 開發을 토대로 優秀한 商品을 싼 값으로 만들어 내야겠다는 말씀을 거듭해 오셨습니다.

本人도 이러한 뜻을 받들어 그 部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努力은 해 왔습니다만 그러는 가운데 뼈저리게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科學者·技術者의 不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科學의 훌륭한 製品을 願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科學者와 技術者의 養成인 것입니다. 時代的 要請이 이와같은 오늘 여러분을 맞아 討論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우리 두 나라를 위해서 다같이 利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서 本人은 우리나라 科學技術界의 現況을 여러분에게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어서 韓美間의 技術協力에 關해서 本人이 平素에 가지고 있던 몇가지 意見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7年 4月 21日, 科學技術行政을 一元化하도록 하라는 大統領閣下의 指示에 따라 科學技術處가 새로운 政府機構로 誕生했습니다.

지금 科學技術處를 頂點으로 해서 韓國科學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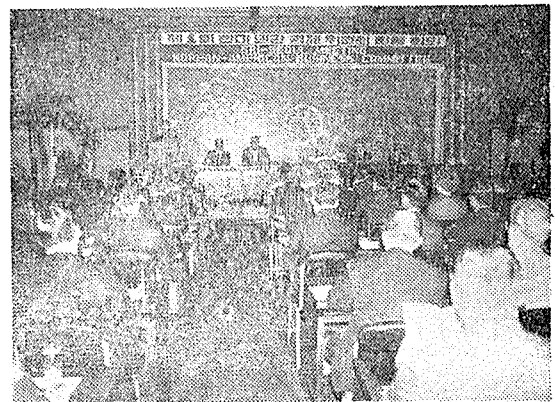
術研究所를 위치하여 모두 92개의 국립 또는 民間 技術研究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韓國科學技術研究所는 우리 나라 大統領과 前 美國大統領의 合意에 따라 韓美合作으로 지난 10月 23日에 竣工된 世界水準의 科學技術研究機關입니다.

그 밖에도 92個의 研究機關이 있는바 여러분들에 參考가 되실 것같아서 그 명단을 끝에 添附했습니다.

科學技術團體로는 本人이 會長으로 있는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傘下에 總 100個의 學會 또는 協會가 있는데 그 名單도 뒤에 添附했습니다.

技術用役團體도 相當數 있어서 各種分野의 技術을 提供하고 있습니다. 科學技術處에 登錄된 26個의 有能한 用役會社以外에 各種 建設事業에 關한 基本調査를 위하여 建設部에는 別途로 68個의 用役會社가 登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本人은 우리 나라가 지금 必要로 하고 있는 것은 外國의 優秀한 製品이 아니라 「技術」 바로 그것이라는 點을 強調한 바 있습니다. 이



目標을 具體化하기 위한 施策은 大體로 다음 세 가지로 集約이 되겠습니다. 卽

첫째 科學技術界 人力의 精密한 需給計劃의 樹立입니다. 科學技術處는 政府各部處의 協調를 얻어 1968年 12월에 長期人力需給 推計와 政策方向을 提示했습니다. 그 推計는 1986年을 目標年度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最終年度의 科學技術界 人力需要를 242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現在人員이 70萬名에 不過하고 보면 그 不足相이 매우 두들어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엄청난 需要를 맞추기 위한 方案의 하나인 技術者 國內養成問題입니다.

今年 9月 1日 現在 우리 나라에는 中央職業訓練院을 위시하여 59個가 있어야겠으며 美國用役會社와 韓國用役會社와의 合同用役도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셋째 韓國에서는 앞으로도 繼續 經濟建設을 위

한 各種事業이 推進될 것인바 이에 必要한 技術者의 養成에 所要되는 器具와 資料를 提供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韓國技術者懇談會를 定期的으로 開催할 것을 希望하는 同時에 現在도 進行되고 있는 韓國技術者의 海外訓練에 積極 協調해 주실 것을 附託드리는 바입니다.

以上 우리나라 科學技術界 現況과 그리고 韓美間 技術協力에 對한 平素의 意見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 보다도 반가운 일은 오늘과 같은 純粹 民間 베이스의 모임이 兩國의 友誼와 共同利益을 위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金 允 基